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종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집사 선출을 위한 임시 제직회

# 집사 · 권사 선거 규례 확정하다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5월4일 정기 당회에서 7기 안수 집사와 5대 권사를 선출하는 규례를 확정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교회 규정집 제1장 5조 3항에 따라 교역자 회에서 권사후보를 추천하여 당회가 심의한 결과 45명을 공동의회에 제청키로 했다. 이들을 19일자 순례자에 연령순으로 소개하고 26일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 중 종다수로 40명을 선발키로 했다.

천을 받아 26일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 중 종다수로 20명을 선발케 된다.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는 본 교회 등록된 서례교인이다.

집사 후보 자격은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 5년 이상 경과한 서리집사로 담전 3:8~13 해당자이며 이명해은 타교회 직분자는 앞에 해당하는 자로 본 교회 등록 1년이상된 자이다.

안수집사 역시 규정집 같은 조항에 의거 12일(주일) 임시제직회에서 배수(40명) 공

## 낳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주일

오늘은 아버지 주일. 아버지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께 진실한 사랑의 감사를 드린다.

오늘 교회에서는 주일예배시간에 부모님과 연세 드신 어르신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꽃을 달아드리는데 I부는 중등부, II부는 고등부, III부는 대청부가 담당케 된다. 또한 꽃을 달아드리는데 아름다운 현장은 사진에 담아 전시할 예정이다. 각 교육부서에서도 효도 잔치를 준비하는데 초등부는 장년5부 효도잔치, 유년부는 부모님께 편지 쓰기, 유치부는 무지개 과일 축제등 푸짐한 잔치를 준비한다.

## 전 교인 사진촬영

-5월19일(주) 부터 4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매주일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증가와 더불어 교회행정 업무가 복잡하여지고 새로운 성도의 정확한 구분이 곤란하여 몇몇 교역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애로사항도 종종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엔 교회는 전 성도를 대상으로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한다. 이번엔 촬영된 사진은 파일로 보관하게 되며 교적관리를 비롯한 교회내의 중요한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 촬영 및 안내는 멀티미디어 봉사단(단장 조철기 집사)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사진촬영 일정 및 장소, 시간, 촬영순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일 자	촬영대상	비고
5월19일	교역자 · 당회원 전원 · 스테반회 전원 · 권사회 전원	1·2부
5월 26일	남녀 제직원 전원 · 1~4교구 교구 식구	예배후
6월 2일	찬양대원 · 남녀 선교회 전도회 전원 · 5~12교구 교구식구	촬영
6월 9일	교육1국 · 교육2국 · 교육3국 · 교육4국 · 교육5국 교사 · 학생전원	(802호)

## 장학회장에 윤봉준 장로 임명

그동안 공석중이던 장학회장에 윤봉준 장로가 임명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건축으로 인해 장학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던 것을 올해부터 재개키로 하고 규정에 따라 장학회가 운영될 것이다.

## 찬양과 간증의 시간 갖는다

-5월18일(토) 오후 5시30분-

엘리아 남선교회(회장 김광신 장로)와 바울 남선교회(회장 조정식 집사)는 활기 찬 5월을 위해 찬양 및 간증의 시간을 준비한다.

엘리아 남선교회 회장 김광신 장로는 이번 행사는 엘리아와 바울 남선교회 회원뿐 아니라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온 가족 찬양의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관심 있는 성도가정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이 날 찬양 및 간증은 복음사가 가수로 기독교계의 각종 방송과 찬양집회에서 활동중인 최미씨가 담당케 된다.

## 예배위원회 야외예배

예배위원회(위원장 최중시 장로)에서는 봉사자들의 친목 도모와 사랑의 교체를 위한 야외예배를 5월18일 (토) 도원농원에서 갖는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후3시에 한다.

또한 예배위원회에서는 함께 봉사 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봉사 하실 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편서 잊으셨나요?

성도의 떠나간 자리는 이름답습니다.

주일을 지난 월요일 아침.

교회 각 부서에서 사용한 방을 점검합니다. 이 시간에 각 방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각종 전기 장비는 안전한 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은 사용한 흔적을 찾기보다 힘들 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방을 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과거며 커피찌꺼기 것부터 흐트러진 성경책이며 찬송가, 악보 등으로 몸살을 합니다.

우리의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우면 모두가 즐겁습니다.

### 교구일꾼 수련회

시 간: 5월16일(목) 저녁7시

장 소: 웨스터민스터홀 (101호)

초청강사: 김인아 전도사(과천교회, 아줌마 전도왕 저자)

참석대상: 교구일꾼, 전도양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교인

### 가족찬양대회 본선

시 간: 5월17일(금) 저녁7시

장 소: 웨스터민스터 홀(101호)

참석대상: 교구별 예선을 거친 2가정

이사야서 강해

# 메시아의 사명

## (이사야 61장 1 - 3절)



이종운 목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해진 예언입니다. 1절 '내게라는 말로 보아 이것은 메시아 자신의 말씀입니다.

### 1.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함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1절).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니웁'이라고 읽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자, 억압된 자, 겸비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메시아는 괴로움을 당하는 자, 억압된 자, 겸비한 자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마 5: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름다움이란 히브리어로 '맛세르'라고 읽으며 기쁘게 해주는 소식,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다는 소식, 영원히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죽음을 뛰어 넘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 2. 상한 마음을 고치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1절)

마음이 상한 자란 재난과 불행을 당한 자라기 보다 죄 때문에 근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한 마음은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은 양심에 고통을 느끼어 우는 마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양심의 상처를 아픈게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3).

상심한 자는 어떤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눅 15:19).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껴안으며 반지를 끼어주고 잔치를 베풀며 아들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회개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 3. 포로 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와 놓임을 주신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1절).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고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에 앉아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머리에 화관을 씌어주시고 슬픔 중에 말라 여윈 몸에 희락의 기쁨을 발라 그 몸이 윤택하게 하며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갇힌 자'는 죄의 종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이런 이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4-36).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21).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썩어질 것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의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이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은혜 받은 날을 선포하심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선포하여"(2절).

예수님은 여러 방면으로 '은혜의 때'를 선언하셨습니다. '은혜는 기쁨, 환영, 친교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끊어졌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또 대화를 하고 친교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고 그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생깁니다.

완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때를 거절합니다. 은혜의 때는 인생을 사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 5. 심판의 날을 선포하심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2절)

'심판의 날'은 원수를 갚는 날이며 원수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마 7:22-23)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신자에게는 구세주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를 주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영접해야 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미 때가 늦게 됩니다.

### 6. 슬픈 자를 위로하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죄를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위로를 주십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4:13).

이것은 부활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고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에 앉아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머리에 화관을 씌어주시고 슬픔 중에 말라 여윈 몸에 희락의 기쁨을 발라 그 몸이 윤택하게 하며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성도가 기뻐하며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남을 용서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3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의 나무가 되고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히 썩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메시아를 모신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어주신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최승우(초등부)

아빠 저 승우예요...  
 제가 1학년 입학 한지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5학년  
 으로 훌쩍 커 버렸네요.  
 다 아빠가 잘 먹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큰 것  
 같아요.  
 아빠의 사랑이 넘쳐서 저는 지금 행복의 가정에서 자  
 라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빠가 저를 귀찮게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근우 형 그리고 우리 엄마 나 모든 사촌  
 식구들을 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때로



는 때쓰고 화내고 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빠에  
 게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 드시면서도 집에 들어오실 때  
 는 늘 웃음으로 들어오시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 제가 아빠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니까 걱정 마  
 시고 이만 쓸게요.

아빠 사랑하고요, 아빠의 웃음 변하지 마세요.

아빠 사랑해요.



###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 사랑하는 엄마에게

박연경(유년부)

어버이날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엄마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동생은 가끔 장난꾸러기 같지만 사실은 귀여워요. 엄마가  
 제게 사주시는 학교 준비물이나 어린이날 선물로 주신 책을 연  
 준이는 탐내지도 않고 사달라고 떼쓰지도 않아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 참 착하다고 생각 돼요.

엄마,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검은 마음이 있나봐요. 부모님 말  
 씬 잘 듣고 연준이랑 사이좋게 놀고 싶었는데 잘 안될 때가 있어

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죠?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도록 많이 기  
 도해주세요. 저는 어린이날이 제일 좋아요. 선물도 받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엄마 하나님께서 저를 엄마에게 주시고 엄마가 저를 낳으셨기 때문  
 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엄마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  
 니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기쁘게 드리고 Q.T도 날마다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예쁜 어린이가 될게요. 사랑해요 엄마!

연경 올림.

### 봉숭아 학당 선생님께

이강인 집사(11교구, 장년 4부)



#### '스승의 날'

오랫동안 있고 살았던 날입니다. 결혼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분주한 삶을 살던 제게 문득 선생님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 부자  
 가 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 저는 올해 하나님의 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니다. 아내  
 와 함께 가브리엘 찬양대를 하게 되었고 1부 예배를 드리는 덕분에  
 장년부 성경공부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선생님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6  
 년 동안 사랑부를 봉사하다가 1년만 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  
 습니다. 마음에 조바심이 났지만 그래도 봉사를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이 걸렸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따뜻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 신앙의 후배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시느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메워진 장로님의

책을 보면 제 마음이 벅차 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며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기  
 도하실 테니 그 또한 감사하기만 합니다.

준비해오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아 선생님은 말씀을 아끼시는데 속없는 학생  
 들은 자꾸 떠들어서 혹시 속상하지는 않으신지요? 그 반은 TV에 나오는 봉숭아  
 학당처럼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당신이 문제 학생인 것 같다고 아내는 가끔 핀잔  
 을 줍니다. 우리 반은 선생님이 한 마디 하시면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얘기  
 하느라고 장년부에서는 가장 시끄럽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제자  
 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곤 하지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별이라고 하신 장로님의 말씀, 예수님  
 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신 장로  
 님 말씀이 요즘 제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장로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수지 곶의 행복한 부부 다락방

박승희 집사(12교구 9다락방)

부부의 개념이 혼  
 동되고 왜곡되어지  
 는 오늘날 교회와 가  
 정을 끌어안고 우리  
 의 삶을 행복하게 만  
 드는 아름다운 부부  
 다락방을 소개하려  
 한다.

구룡 터널을 지나  
 노라면 연두 빛 수채  
 화가 펼쳐진 그림 같은 수지 곶이 나온다. 교회에서 조금  
 먼 거리이지만 청정한 하늘에 별들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  
 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곳에 모인 여섯 가정의 목요일이면 성령의 바람을 타  
 고 말씀의 용달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찬양으로 군불  
 을 지피며 따끈따끈한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김광신 장로  
 님!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 드러지는 예배는 어느 한  
 가정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으로 드러지는 다락방 예배다.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가정의 부모관계 부부관계 성

도들의 관계의 진실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는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수지다락방  
 의 축제의 시간들이다.

때때로 야외예배로 다락방의 사랑의 교제는 더욱 열기  
 를 더해가고 있으며 예배 끝나는 시간에는 성경 읽기 숙제  
 검사 시간이 꼭 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  
 이 일어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이 덮  
 여졌던 가정이 한 주간에 150장 이상 읽으며 서로 가정들  
 마다 성경 읽는 붐이 일어 수지 곶이 성경말씀으로 달구어  
 지고 있다. 말씀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사업에  
 도 자녀교육에도 등등 여러 문제들이 다락방안에서 응답  
 받고 해결되고 있다.

목요일이면 빠짐없이 그 시간을 지키려 아침부터 바쁘  
 게 일터에서 지내시는 남집사님들의 총정 어린 믿음의 영  
 적인 도전을 받으며 아픈 다리로 목발을 짚고도 빠짐없이  
 다니시는 오형철 집사님.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냉전을 하  
 다가도 목요일이면 무조건 화해를 해야되는, 그래서 부부  
 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며 깊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다락방 예배를 사모하며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  
 는 가정들 때문에 수지 곶 부부 다락방의 밤은 무르익어만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결혼한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오  
 래된 부부(30년)일수록 신혼가정처럼 신선하고 아직도 사  
 랑 받는 아내와 존경받는 남편의 자리가 확실하며 그 관계  
 들이 향기롭기만 하다.

때때로 다른 부부들의 믿음생활과 부부생활을 보며 삶  
 의 도전을 받는다.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며 말씀  
 과 기도로 노력하는 은혜의 현장이기도 하다.

오늘도 수지 곶에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 목숨 같은 아  
 내 하늘같은 남편으로 든든히 세워져 더 깊어지며 더 넓어  
 지고 더 높아지는 부부다락방이 아름답다.

날마다 새 비전을 꿈꾸는 수지 곶 다락방의 발전과 부  
 흥을 위해 오늘도 기도 드린다.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박영옥 권사(12교구)

작년 4월28일 우리 손자 "지원"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크신 선물을 안겨주셨다. 결혼전 아들의 교통사고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뻔했던 지원이는 정말 귀하고 남다른 선물이다.

이렇게 예쁜 아기를 우리 품에 안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른다.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시편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린다.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큰 환란이 지나가고 이렇게 기쁜 날 좋은 날들을 주시니 무엇보다 감사로 드릴까 하는 중에 할아버지(한길동 집사)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원이가 태 중에 있을 때부터 신·구약 전권 필사성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마다 눈물로 감사로 은혜로 쓰기 시작하여 지원이 첫돌에 주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써왔다.

마침내 17개월만에 필사가 끝나 완성이 되어 4월25일 지원이 첫돌 날에 필사본 성경을 안겨주었다. 세상의 어떤 선물

이보다 더 크고 귀하라!

할아버지의 그 애틋한 사랑은 지원이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열매 맺기를 기도드릴 뿐이다.

지원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 아빠의 아픔을 잘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책을 받는 손자 지원이와 선물로 주신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기쁨으로 받으신 듯하다.

지원이가 벌써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로 주님께 기도 드린다.

천사 같은 우리 지원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교회와 세상을 빛낼 손자가 되기를...



## 전도 그 아름다운 발길

김영수 집사(5교구, 70인 전도대)

-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 내 믿음은 많은 증인들이
- 자기를 버림으로 자기의 사랑을
- 확증하였습니다.
- 죽은 나무 십자가의 주님 피와
- 증인의 피가
- 저주받은 이 땅에
- 사랑과
- 회복과
- 구원의 꽃을 피웠습니다.

- 2000년이 지난 지금도
- 성령님은 온 땅에 살아서
- 펄펄 살아 움직입니다.

- 자기를 버림으로 얻은 영생
- 아 순교!
- 그 아름다운 면류관
- 그 아름다운 유혹
- 나도 유혹 당하고 싶다.

## 첫 돌 맞았습니다

이윤진 집사(1교구)



2001년 5월 서울교회에 처음으로 막내딸 서진이와 함께 예배당을 들어섰습니다. 새가족을 위해 하셨던 이종운 목사님의 기도대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천사의 미소로 다가오셨던 이름 모를 어느 권사님. 그 아름다운 미소가 기도가 부족한 이 딸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 저는 서울교회의 돌 박이입니다.

6월 첫째 주 성령강림주일에 우리 가족은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해주시길 기도제목으로 삼고... 그런데 교회를 등록을 하고 바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뵙고 상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절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후로 그렇게 많았던 고난의 세월도 말씀으로 감당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는 정말로 목사님을 뵙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에서 빠져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뵈을 시간도 없이 곧바로 홍해작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일입니까? 저를 삼키려고 넘실대던 시커먼 홍해바다를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옷자락 하나 젖지 않고 무사히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6월이 오고 홍해작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문득

작년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홍해작전을 통해 승리할 우리 가정을 기대해 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 은혜로 귀한 찬양 드리게 되어 기쁨이 크지만 부족하여서 늘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며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봉사부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따뜻한 차 한잔도 대접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받은 만 가지들 은혜를 찬양으로 보답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말없이 봉사하겠습니다.

서울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신 새가족부, 찬양대로 인도하신 백 권사님, 그리고 기도 6팀의 민순구 장로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비회 여전도회로 인도하신 김영식 집사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등정

- 이종운 목사는 5월10일(금)한국교회 원로 간담회에서 특강을 했다. 15일(수)영동 극동방송국 개국기념 성회를 강원도 속초에서 인도한다.
- 개업:최웅진 집사, 홍정희 집사(1교구) : 안양 롯데백화점 포장코너 (016-822-0159)
- 이사:원복순 권사(2교구) 논현동 동현 APT6동709

- ☎ 금주의 식사제공:박정선 집사, 김남순 권사 (모친 장례를 은혜중에 미치고) 김정길 집사, 이영희 권사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 김종자 권사 가정

## 6월6일 강남노회 체육대회 참가선수 모집

- †종목: 배구
- †자격: 본 교회교인으로 현직 배구 선수이거나 배구선수였던 분 또는 평소에 배구를 즐겨 경기를 이해하고 이룰 수 있는 분
- †접수: 사무국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 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가정의 화평과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지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